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기업 신재생에너지 전환 위해 만든 K-RE100, 참여율 1%대 그쳐 *한국경제TV*
- 현대글로벌비스 친환경 브랜드 '에코' 론칭 *디지털타임스*
- '포 대표 수소기업' 롯데케미칼, 세계 최대 수소 펀드 투자 *머니투데이*
- '법인 세우고, 경쟁사와 연대'...수소 본격화 나선 기업들 *이데일리*
- 포스코인터 인니 팜사업 '친환경 국제인증' 획득 *파이낸셜뉴스*
- 풍력발전 설비 외국인 의지 심각...국산화율 70%→12%로 '뚝' *뉴스1*
- 철강·석유업계 '획기적 탄소감축 기술 없인 달성 힘든 목표' *경향신문*
-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신세계, 시멘트에선 가능합니다" *머니투데이*
- 전경련 "온실가스 배출기업 68%, 탄소중립기본법 과도하다" *뉴스1*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3분기 국내 M&A 큰장 섰다...2016년 4분기 이후 최대 *이코노미스트*
- 세대교체 나선 김동관...젊은 임원 대거 발탁 *서울경제*
- SK E&S,美기업 손잡고 수소소시장 공략 *매일경제*
-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공탁한 주식 규모 5조원 넘겨 *아시아경제*
- DL케미칼, 대림피앤피와 합친다..."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 *뉴스1*
- 애경, 화학3사 통합...바이오·친환경 승부수 *매일경제*
- 한화솔루션, 中 PVC 법인에 6,000억 투자 유치 *서울경제*
- 현대차그룹, 한충전 60억 유증 참여...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 *이데일리*
- 바른손, 214억원 규모 '두나무' 지분 확보 *서울경제*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플랫폼 감사' 중기부 국감...'골목상권 침해' 최대 쟁점 *뉴스1*
- "한국 대기업 직원, 일본보다 월급 25% 더 많이 받는다" *매일경제*
- 현대차 노조 간 몸싸움 배경엔 '줄어드는 일감 공포'... "앞으로 더 커질 문제" *한국일보*
- "앤씨 왜 이러나" 상습 성희롱에 '출퇴사' 논란까지 *헤럴드경제*
- 삼성 노조 "연봉 천만원 인상·영업의 25% 성과급 달라" 첫 임금교섭 난항 예상 *이코노미스트*
- '스타트업 기술 탈취' 정우진 NHN 대표 "책임 통감한다" *머니투데이*
- 연이어 터진 공동체 논란에 사회(S) 등급 강등 우려 *더벨*
- SPC 시민대책위 "던킨 공장, 한 번도 청소 안 해" vs SPC "허위 주장" *뉴스1*
- LG전자, 성과급 기준 개편..."회사 전체 실적 우선" *디지털타임스*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탄소중립의 역설...그린플레이션이 세계 경제 발목 *중앙일보*
- 산업은행, 비우량 ESG 채권 지원 '한번 더' *더벨*
- 8천억원에 산 석유회사 28억에 헐값 매각한 석유공사, 역대연봉자는 20%↑ *뉴스1*
- 돈 되는 신상 '탄소배출권'의 세계 *비즈니스워치*
- 노벨물리학상도 '기후변화'에 주목...마나베·하셀만, 파리지 공동수상 *한국일보*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 세계 최초 한국에 설립 *뉴스1*
- 트러스트, BYC 지분 지속 확대 '주주행동 대비' *더벨*
- 국민연금, 규제 폭탄 맞은 중소기업들에 7조원 투자 *서울경제*
- "국내 정책 2050년 목표로 완급조절 필요" *디지털타임스*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해외 PE의 ESG 투자 동향과 사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10.01

A

- PE(Private Equity)는 다른 투자방식에 비하여 장기적인 투자기간을 가지며, 경영참여(engagement)를 통해 투자기업의 ESG를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고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SG가 중요한 투자 고려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PwC가 글로벌 PE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가 ESG 관련 정책 등 투자실행에 있어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72%가 투자 전 투자기업의 ESG 위험과 기회를 검토함
- 최근 국내 주요 LP들이 출자사업에 ESG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GP, General Partner)들도 ESG 투자를 도입하는 추세임
- 해외 LP 예시)**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는 PE 자산에 대한 별도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책임투자 정책과 모니터링을 중시함
- CalPERS의 선정심사는 GP의 ESG 정책 및 제안서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실사 시 "의사결정 및 주주권행사 시 ESG 요인 통합방법 및 투자기업 경영참여 사례", "투자자와 관련 있는 ESG를 식별하는 방법" 등과 같은 정보를 질의함
- 모니터링은 매분기 진행되며, 운용사가 제출한 ILPA Portfolio Company Template과 운용사의 ESG 보고서 등을 검토함
- 해외 GP 예시)** 유라제오는 2004년부터 ESG 투자를 고려하기 시작하여 현재 모든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자 단계별로 ESG 요인을 통합함
- 투자 전, 유라제오는 투자배제정책에 따라 투자 건을 검토하며, 각 투자건별 기후영향 및 ESG를 평가함
- 투자 후, 유라제오는 투자대상에게 ESG 준수사항 및 ESG 프로그램(투자기업의 사업모델에 ESG 요인을 통합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투자기업의 ESG 이행 경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연간 모니터링을 진행함
- 유라제오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기반으로 한 자체 평가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별 ESG 프로그램 구축에도 활용됨
- 모니터링은 GP의 책임투자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LP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GP 입장에서 ESG 투자는 점차 필수로 인식되고 있음

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사례: 미국 임원보수 공시와의 비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10.01

G

- 국내 임원 보수공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수결정주체를 제시하지 않거나, 보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례 등 주주의 임원이 보수체계에 대한 판단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됨
-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지난 3년 간 개별임원 보수 공시 회사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확인되며, 전체 사내이사 대비 보수가 공시된 사내이사의 비율은 약 20% 수준으로 확인됨
- 불투명한 공시로 보수에 관한 판단을 대표적인 사례는 1) 보수결정주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최대 지급 가능한 성과연동 상여금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 보수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불충분한 설명 등임
- 이와는 달리 미국은 보수정책, 체계, 산정기준 등에 관한 보수공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며 요약 보수표 등에서 최근 3년간의 보수유형별 지급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비교가능성도 높은 편임
- 미국 SEC는 성과목표와 달성도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쟁법 상의 이유로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목표 달성이 얼마나 어려운 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S&P500에 속하는 미국 대표기업인 P&G 사례를 확인하였을 때, 구체적 지표, 가중치와 산정방식이 공시되어 있었으며, 사전적인 목표와 사후적 달성도까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성과와 연동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임원 임원보수 공시의 경우, 목표 대비 달성도를 제시한 기업은 조사 대상기업 79사 중 단 1사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목표 달성 여부(달성 또는 미달성)에 대해서 언급한 7개 사가 비교적 상세한 공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보수결정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지급근거가 되는 연도를 제시하고, 최대 지급가능한 성과급의 비율을 제시한 회사의 비율은 각각 약 60%, 약 54%, 약 50%에 불과하였음
- 기관투자자는 주주참여 시 불충분한 보수공시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상법개정으로 주주총회 최소 1주일 전 사업보고서를 기재하는 것으로 환경이 바뀐 만큼 불투명한 보수공시에 대해 보수 한도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 정책 당국은 성과연동성 등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보수의 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기존 서식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개별임원보수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보수체계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합병 시 자기주식의 발생과 처분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10.01

- 최근 GS리테일-GS칼텍스, 한국엔컴퍼니-한국아트라스비엑스 등 일부 상장사가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병신주의 배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였음
- **합병 과정에서 경영진의 선택에 따라 소멸회사 자기주식 및 포함주식(존속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의 주식)에 합병주식을 배정하여 자기주식이 발생할 경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 자기주식이 대규모로 시장에 풀려나와 의결권, 현금흐름권 등이 부활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주주권이 희석됨.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 주식이 아니며 이를 처분할 경우 회사의 자본금 및 기존 주주 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이 신주발행과 동일함
- 해외 국가들은 자기주식의 처분 시 기존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는 그런 장치가 부재함.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경우 리스크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 2011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공시된 총 132사의 합병 사건에 대하여 소멸회사의 자기주식 기존 보유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분 및 포함주식의 비율과 그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 여부를 조사함
- **합병당사회사가 소멸회사 기존 보유 자기주식 혹은 포함주식을 보유하여 합병신주 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회사의 과반수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소멸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한 회사의 비율은 소멸회사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한 회사의 비율보다 더욱 높게 나타남
- 소멸회사의 자기주식과 포함주식 중 1가지 이상에 합병신주를 배정한 67사 중 23사(35.8%)는 자기주식이 대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수의 5% 이상 대량 발생한 회사 23사 중 19사(82.6%)는 합병 후 상당량의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남
- 19사 중 7사는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판단됨. 반면 12사는 자기주식을 외부에 처분하여 주주권 희석을 야기하였으며,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리스크가 현실화됨
- 투자자들은 자기주식 발생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에 유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합병 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합병 전 자기주식을 선제적으로 소각하는 등 주주친화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함

G

일본의 탈탄소 전략과 대형은행들의 기후변화 대응

- 한국금융연구원 21.10.02

-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삭감 목표를 기존의 26%에서 46%로 크게 상향 조정하였는데,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4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최대 약 7,870조엔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일본의 배출량 비중(3.2%)으로 환산하면 일본은 약 251조엔, 연간 13.25조엔이 필요함
- 일본 정부는 예산과 세제 등 정책을 총동원해 민간기업이 보유한 현금 및 예금 240조엔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린국제금융센터를 정비해 3,000조엔에 이르는 세계의 ESG 머니를 일본으로 끌어들이어 탈탄소화의 추진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임
- 미쓰비시UF파이낸셜그룹(MUFG), 미즈호파이낸셜그룹,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그룹(SMFG) 등 일본의 3대 메가뱅크 그룹은 2030년까지 자사의 탄소배출량(Scope 1+2)를 제로로, 2050년까지 자산포트폴리오 배출량을 넷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거래처 기업의 탈탄소 촉진을 위해 MUFG는 올해 4월에 2030년까지 지속가능금융 목표액을 기존의 30조엔에서 35조엔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미즈호FG와 SMFG는 동 목표액을 각각 25조엔과 30조엔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전환금융(친환경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금융 수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MUFG의 경우 탄소배출 기업에서 조사 및 이행솔루션 제안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3대 메가뱅크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기존 사업의 확장에 대해 투융자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2040년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여신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음
- 한편 투융자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점은 투융자 포트폴리오의 넷제로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 금융청은 2022년 3월 결산부터 유가증권보고서에 기후변화가 기업의 실적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할 방침임
- 유럽 주요국들은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도 올해 중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관련 정보의 공시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E

E

주요국 대형은행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 한국금융연구원 21.10.02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 대형은행들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단계적인 축소 계획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노력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영국의 비영리기관인 ShareAction이 작성한 보고서(sustainability: banks promise too much, 2021.09)에 따르면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신규 자금공급이 이어지고 있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실행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함**
- 이와 관련하여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금년 5월 발간 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신규 자금공급이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정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탄소 배출량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표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등 미국 대형은행들은 UN 기후대응 특임대사인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의 주도로 설립된 탄소중립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에 가입함. 금년 8월말 현재 28개국 55개 대형은행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자산은 전세계 은행 총자산의 약 1/3인 37조 달러에 달함
- HSBC는 2040년까지 발전용 석탄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단계적으로 축소 및 중단할 계획으로 2018년 4월부터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신규 자금공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 말경 탄소배출량 축소 유도를 위해 원유, 가스, 전력 회사 등에 대한 단계적인 자금공급 축소 및 중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임
- NetWest는 금년 말까지 신뢰할 만한 탄소배출량 축소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대형 정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대출 및 유가증권 인수 등 신규 자금공급을 중단할 계획임
- 핀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금융그룹인 노르디아, 로이드뱅크그룹 등도 금년 말경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신규 자금공급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임
- 향후 주요국 대형은행들은 금융당국 및 기관투자자들의 친환경 경제성장 중시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량 축소 유도를 위한 경영전략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보다 명시적인 기준 및 실행 목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공시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시장 트렌드 및 기술 개발 동향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10.06

E

- 이차전지 시장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23%의 고성장이 예상됨
- 중-대형 배터리(전기차와 ESS에 사용) 시장 수요는 165GWh(2020년)에서 3,568GWh(2030년)까지 연평균 36% 성장이 전망되며, 공급은 489GWh(2020년)에서 3,112GWh(2030년)로 연평균 20% 증가가 전망됨
-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는 중국 CATL이 2020년 기준 점유율 24.0%로 1위이며, 한국 기업들은 공격적 증설 및 우수한 품질 기반의 수주 확대로 전년대비 점유율을 제고함. 배터리 시장은 높은 기술 진입장벽과 상위 업체들의 공격적 증설로 인해 과점 심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EU는 EURO6 정책을 통해 신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 및 벌금 규모를 모두 강화하면서 완성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생산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는 ZEV, 평균연비규제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며, 트럼프 정부 시절 연비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친환경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연비 규제 재강화 기류
- 중국의 경우 상지편제도 도입을 통해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생산을 장려 중임.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고, 2035년 이후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함
- **배터리 산업이 한중일일에 집중됨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함.** 미국의 경우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현지 생산은 미국산 전기차를 위한 필수 조건임
-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원 차별 등 자국 배터리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 2021년 폐지가 예상되었으나, 2022년까지 기한이 연장됨
- EU는 2017년 'European Battery Alliance(EBA250)'을 출범하여, 권역 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시도 중임
- 배터리 업계에서는 에너지밀도 증가, 수명 연장, 충전속도 단축,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소재 기술 고도화가 진행 중임. 에너지밀도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들은 양극재, 음극재 등 주요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임
- 배터리 분야는 폭발의 위험 등으로 인해 밸류체인 내 업체들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배터리 성능이 개선되는 구조로, **배터리 기술 고도화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와 배터리 업계의 협업은 강화될 전망이다**
- 배터리 산업 영위 기업들은 연관 산업으로 활발한 영역 확장 중이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내재화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제고를 추구할 전망이다

E

러시아 수소산업 현황과 한-러 수소경제 협력 가능성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10.06

- 러시아의 초기 수소에너지사업은 1960년대 우주산업 추진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구소련 해체 이후 재정악화로 우주 발사체 연구가 정체되면서 수소 관련 연구개발이 침체됨
- 이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관련 연구개발 노력을 재차 활성화한 가운데 2020년에는 “수소에너지 발전 로드맵 2024” 승인과 “에너지전략 2035”를 수정 발표하는 등 수소에너지 발전을 꾀하게 됨
- 러시아는 동 로드맵을 바탕으로 수소 생산공장 건설, 가스터빈 생산사업, 수소열차 운송사업 등의 관련 사업과, 연구기관 및 인재 양성 등을 통한 ‘수출 지향적 수소에너지 산업’ 선진국 지위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음
- 이의 연계선상에서 러시아는 현재 화석연료의 주요 수출처인 유럽의 향후 수소연료 대체를 대비하고, 아태지역으로의 수출역량을 새로이 강화하고자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수소산업 선도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향후 글로벌 수소시장에서 청정수소 최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러시아는 자국 수소산업 전략의 중요 요충지 중 하나인 한국, 일본 등 아태 지역을 겨냥하여 최대 인접지역인 사할린 시에 수소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국과의 수소산업 연계를 위한 우선적인 연결고리로 삼을 전망이다
- 2030년 글로벌 수소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하는 러시아로서는 향후 글로벌 수요가 급증할 액화수소 운송용 선박에 대한 한국과의 협업 수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임

E

GCC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진출방안

- KOTRA 21.10.06

- GCC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배경은 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로부터의 탈피 필요성으로 볼 수 있음. 최근 수요 회복에 따라 유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이나, 지정학적 갈등 및 산유국 감산 이탈 등에 따라 유가 상승은 제한될 전망이다
- 이에 GCC 주요국은 국가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음
- UAE) 현재 25% 수준의 에너지 믹스 내 청정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발전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70% 저감할 계획임
- 아부다비) 세계 최초 탄소 및 폐기물 제로 도시인 Masdar City 구축 및 2026년까지 5,700MW 태양광-열 발전설비 확충 계획임
- 두바이) 청정에너지 전략 2050 일환으로 270억 달러 규모 두바이 그린펀드를 조성했고, 5,000MW 규모 MBRM 솔라파크 프로젝트 추진 중임
- 사우디) 2030년까지 58.7GW의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48개의 에너지 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오만)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6% 달성하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임
- GCC는 선벨트 중심으로 풍부한 일조량 및 적은 강수량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 단가인하 및 기술발달 등으로 발전여건도 개선 중임
- 현재 시장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에너지 전환에 대한 GCC의 관심이 높고, 국부펀드를 활용한 막대한 자금력 등의 고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

호주 수소경제 동향 및 우리기업 협력 방향

- KOTRA 21.10.06

- 호주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화력 발전과 화석 연료 수출에 의존해 왔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속히 성장함
- 호주는 풍부한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원과 수출 인프라, 아태지역 내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를 보유해 수소 수출국으로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
- 2019년 국가수소전략을 통해 기술 중심의 투자 확대를 2030년까지 수소 1KG당 A\$2 미만 달성을 목표로 A\$ 200억 규모를 투자할 전망이다
- 호주는 그린수소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수요처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주요 수입국인 아시아 경제선진국들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 호주의 그린수소가 한국으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호주 내에서 기존 가스망을 활용한 최종 사용자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 한국의 기술이 투입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호주와 달리 국토면적이 작고 인구밀도가 높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입지가 제한적으로, 포집된 탄소를 재활용하는 CCUS 기술에 관심이 높으며 호주는 탄소 포집 입지에 유리하므로 양국 간 관련 기술 개발 협력 가능성이 높음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GENDEW

UBS IIF ETF plc Global Gender Equality UCITS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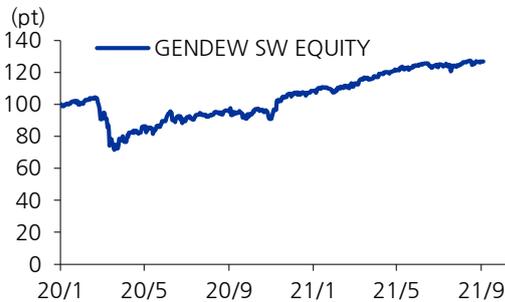
- 글로벌 선진국 중대형 종목 중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500만 달러 이상 종목 대상
- 19개의 Gender Criteria를 4개의 카테고리(리더십, 동일보수체계, 내부 성평등 정책, 정책 투명성)로 나누어 평가. 합산 점수 상위 100개 기업 선정
- 미국 시총 상위 30개 기업은 점수와 무관하게 우선 편입. 미국 종목 비중이 50%까지 될 때까지 상위 점수 종목 편입 후, 미국 제외 국가 종목 편입. 동일 가중 방식

ETF 개요

티커	GENDEW SW EQUITY
상장일	2018-01-03
운용사명	UBS IIF ETF plc
총보수율(%)	0.3
기초지수	Solactive Equileap Global Gender Equality 100 Leaders Index
가중 방식	Basket
주당 가격(달러)	19.79
보유종목 수	114
시가총액(백만달러)	279.7
시총/전략/지역	Large-cap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0월 8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0.9	-1.5	0.1	14.6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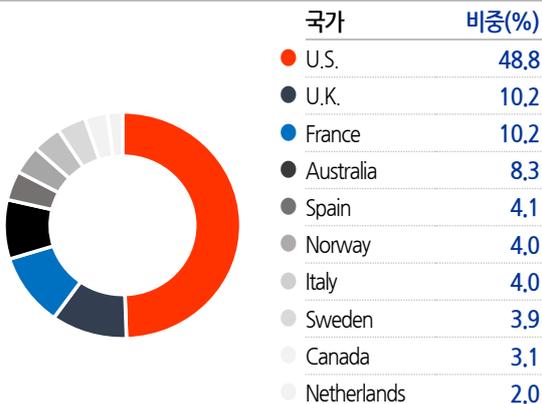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0월 8일 기준
 주: 2019.12.31 증가=100을 기준으로 자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MRK US	Merck & Co Inc	204,105	1.2
S32 AU	South32 Ltd	12,498	1.1
IBM US	Int' Business Machine	128,371	1.1
DNB NO	DNB Bank ASA	37,953	1.1
WBC AU	Westpac Banking Corp	70,125	1.1
YAR NO	Yara International ASA	12,579	1.1
TCLAU	Transurban Group	30,368	1.1
GIS US	General Mills Inc	37,226	1.1
GM US	General Motors Co	85,027	1.1
WFC US	Wells Fargo & Co	197,108	1.0
합계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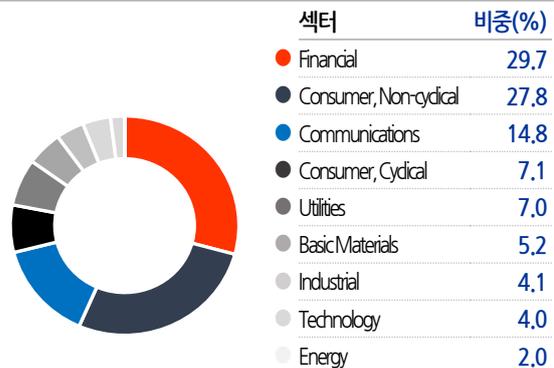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0월 8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0월 8일 기준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0월 8일 기준

목표 8.

모두를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1483 iShares JPX/S&P CAPEX & Human Capital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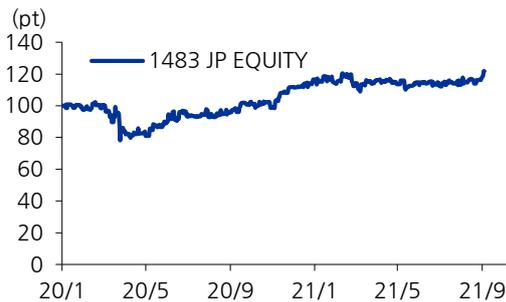
- 일본 Tokyo Stock Price Index(TOPIX) 편입 종목 중 상장 후 거래대금 총액이 1,000억 엔 이상인 종목 대상
- 인적자본 등을 위한 CAPEX와 R&D 투자 비용 및 효율성 개선 추이를 활용하여 점수 산정, 상위 200개 종목 선정
-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 비중을 결정한 이후 점수에 따라 비중 조정. 개별종목 비중 제한(최대 5%)을 두고 있음

ETF 개요

티커	1483 JP EQUITY
상장일	2016-06-10
운용사명	iShares ETFs/Japan
총보수율(%)	0.19
기초지수	JPX/S&P CAPEX & Human Capital Index
가중 방식	Market Cap
주당 가격(달러)	17.52
보유종목 수	202
시가총액(백만달러)	101.3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Japan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0월 8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2.8	-5.1	2.8	0.7	15.4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0월 8일 기준
주: 2019.12.31 증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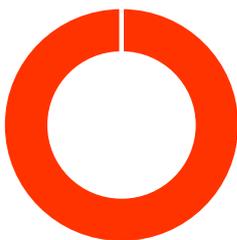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7203 JP	Toyota Motor Corp	286,985	5.5
6861 JP	Keyence Corp	141,993	5.3
6758 JP	Sony Group Corp	138,263	5.1
9432 JP	Nippon Telegraph	107,741	3.7
7974 JP	Nintendo Co Ltd	58,807	3.3
8001 JP	ITOCHU Corp	46,245	3.2
8035 JP	Tokyo Electron Ltd	65,147	3.0
7741 JP	Hoya Corp	54,689	2.9
8766 JP	Tokio Marine Holdings	37,851	2.7
6367 JP	Daikin Industries Ltd	63,496	2.7
합계			37.4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0월 8일 기준

국가 구성

국가	비중(%)
● Japan	99.0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0월 8일 기준

섹터 구성

섹터	비중(%)
● Consumer, Cyclical	30.1
● Consumer, Non-cyclical	22.4
● Industrial	17.2
● Technology	12.7
● Communications	6.8
● Financial	6.8
● Utilities	1.2
● Energy	0.9
● Basic Materials	0.9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0월 8일 기준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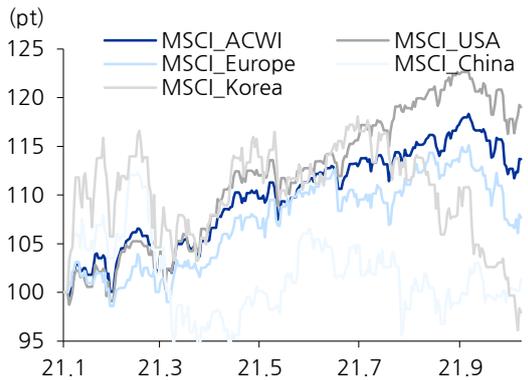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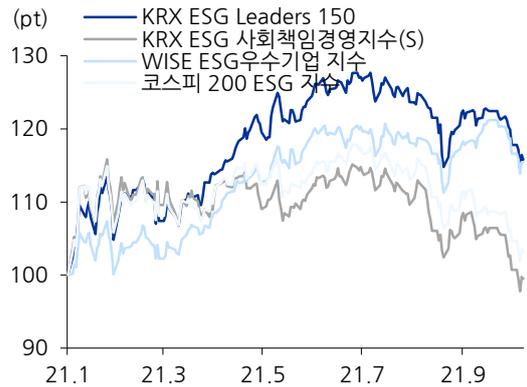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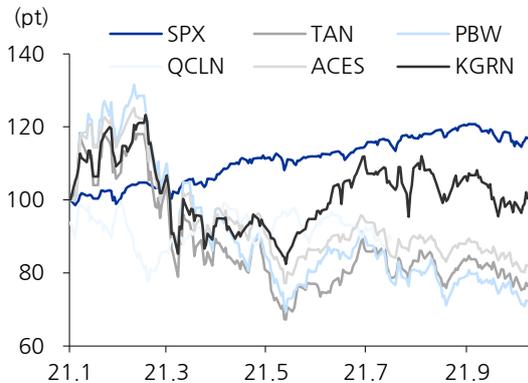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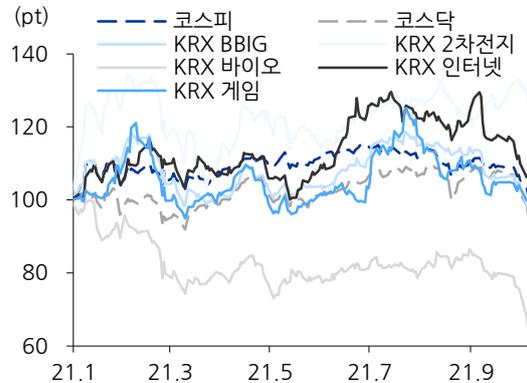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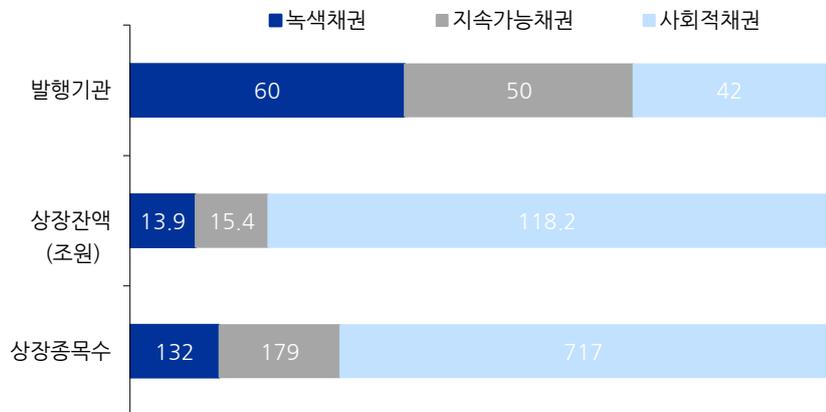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적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중소기업은행 조건부자본증권(상)2109 이(후)10A-24(사)	2021/10/08	2.47000	600,000
녹색채권	신세계 136-2(녹)	2021/10/07	2.43900	60,000
사회적채권	산업금융채권 21 신할 01000914-1(사)	2021/10/05	1.30000	130,000
사회적채권	산업금융채권 21 신이 01060909-1(사)	2021/10/05	1.36000	170,000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적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3자로부터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9.30 기준)